

‘호남민심 균열’ 원인과 해법

포스트 DJ 없는 정치권 각자도생

국민·참여정부 소외감 전북 홀로서기 소통·교류 확대...가치적 연대 모색을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정권 교체 이후, 호남 민심이 예전 같은 일체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을 아우르는 정치적 리더십 및 소통 부재 등으로 서로에 대한 미묘한 오해 등이 쌓이면서 오히려 심리적 거리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 민심의 균열 여부와 원인, 발생 전략 등을 조망해 본다.

▷**틈새 커지는 호남=**전북 민심은 과거와는 달리 광주·전남과 함께 묶이기 보다는 ‘홀로서기’에 나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같은 호남이지만 그동안 광주·전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 일각에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광주·전남은 J 프로젝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F1 대회, 여수 엑스포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집중된 반면, 전북은 새만금 사업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며 섬섬섬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전남에 치여 전북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갇힐 수 있는 것은 적극 행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유치 등 각종 국책 사업에서 광주·전남과 충돌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이 이처럼 독자적 행보에 나서듯 모습을 보이자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호남의 정체성에 균열이 가는 것은 물론 호남의 상생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북의 소외론에 대해 일부 수긍하면서도 국민의 정부 시절, 인사 측면에서는 전북 출신이 오히려 더 중용됐으며 참여정부 시절,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는 사실상 전북 출신(정동영, 정세균, 김원기 등)이 장악했다

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 소통 부족=**이 같은 광주·전남과 전북의 미묘한 입장 차이는 지역 정치권의 소통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DJ와 같은 호남을 아우르는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없기도 하지만 광주·전남과 전북 정치권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걸으면서 호남의 일체감이 약화된 것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 이후, 호남 정치권은 열린우리당과 구 민주당으로 분열되면서 상당한 혼란을 겪었으며 이에 따른 후폭풍은 광주·전남과 전북의 정치적 연대 고리를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기류가 형성된 데다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겹치면서 광주·전남과 전북은 거리감이 더욱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라도의 한’이었던 호남 정권 창출과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시대적으로 호남이라는 지역적 연대감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의 지역적 연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가치적 연대가 호남을 결속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 상생 전략 마련=**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해가 상충되는 각종 현안에 대해 호남 정치권이 정치적 조율 등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남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광역의원들이 정기적인 회동을 통해 소통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호남학과 호남문화 연구기관 등을 광주·전남과 전북이 상호 출자 등을 통해 설립, 운영하면서 호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연대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들의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대학들과 함께 호남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은 과거에서부터 역사적, 문화적 동일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대사의 질곡을 함께 부둥켜 안고 왔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호남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점에서 호남의 미래를 위해 상생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해의 소망을 담아 12일 오후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한마당축제'에서 달집태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하늘로 치솟는 불길을 바라보며 저마다 소망을 빌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호남 균열'

“경쟁 피할 수 없지만 호남 공동체 균열 막아야”

박주선 의원

-호남 민심의 균열에 대해 동의하는가.
▷예전 같지 않다. 과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호남은 일심동체가 됐으며 역사적인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뤄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이 같은 호남의 연대감이 조금씩 무너져 온 것은 사실이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치적 리더십, 즉 구심점의 공백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 분당 사태로 인한 지



역 정치권의 분열과 이에 따른 소통 부재도 원인이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면서 호남의 공조가 됐다. -호남의 상생 발전 방안이 있다면.
▷호남이 예전과 같이 뭉치지 않는다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간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이 실감나는 시기다. 지역적, 가치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호남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출 수 있는 실질 기구 등을 만들어 상생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광주·전남이 전북 끌어안으려는 노력 있어야”

최인기 의원

-광주·전남과 전북의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 광주·전남과, 전북이 모두 경제적 낙후를 벗지 못한 상황에서 현안 사업과 관련,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호남 민심의 균열을 야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
▷우선 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정



치적 리더십 공백을 꼽을 수 있다. 호남 정치권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다. 여기에 각 자치단체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광주·전남과 전북의 심리적 거리감이 커진 것 같다. -전북 소외에 대한 입장은
▷광주·전남에 대한 섬섬섬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전북을 차별한 것은 아니다. 새만금 사업도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도 전

북이 먼저 시작했다. 또한, 전북 출신인사들의 중용은 광주·전남 출신보다 적었다. 그러나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광주·전남지역에서 전북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호남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큰 목표를 위해 작은 것은 서로 양보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치권은 소통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는적극적인 교류에 나서야 한다. 호남민은 지난 세월 갖은 고난을 이겨내고 두 차례나 정권을 창출했다. 호남민은 반민주, 반개혁적인 한나라당 정권을 종식시켜야 하는 시기에 다시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이다.

“개혁·진보 호남 정치적 가치 별다른 변화 없어”

조배숙 의원

-호남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것은 특별하게 느끼고 싶지 않다. 호남민의 정치적 가치는 개혁과 진보며 이는 예전과 같은 기류를 보이고 있으며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본다.
-각종 현안 사업과 관련, 광주·전남과 전북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안 사업과 관련, 광주·전남과 전북이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도 있었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치적 가치에 대한 연대와 지역 현안 사



업에 대한 입장은 같을 수가 없다. -전북 소외에 대한 입장은
▷호남이라는 공동체 아래서 광주·전남에 비해 주변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약간의 피해의식과 섬섬섬한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호남 민심의 균열을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과거에 비해 호남 정치권의 소통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16,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호남지역 정치권의 소통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지 않는다. -‘호남 민심’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호남은 민주, 개혁, 진보, 평화라는 정치적 가치를 함께 하고 있다. 호남 민심은 분열보다는 민주 정부 수립 등 가치적 연대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 보다 큰 목표 앞에서는 서로가 이해하고 함께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일본

부산에서 카멜리아드 떠나는 류수 운전여행

- ★ 북큐슈 야마미 통나무 펜션 ★ 구중산 스키유 마을 전통료칸 숙박 (북큐슈탐색, 구온천관광)
- 4일 ₩379,000 출발일: 3/10 4일 ₩569,000 출발일: 2/26 (광주 출, 도착, 추가비용 없음)

광양에서 광양체리르 떠나는 류수 운전여행

- 8박 9일 실속 ₩399,000 출발일: 2/22, 3/15 5박 6일 명품 ₩599,000 출발일: 2/14, 3/17, 24
- 8박 9일 품격 ₩429,000 출발일: 3/8, 29 (불포함: 광주-광양수송비, 기사&가이드(40,000원))

허니문

- ★ GA 시드니/발리 (매주 월 출발) ★ GA 롬복/바리 (매주 일 출발)
- 7일 ₩2,450,000~ 4박 6일 ₩1,839,000~
- ★ GA 발리 직항 (매주 일 출발) ★ GA 발리 직항 (매주 일, 월 출발)
- 4박 6일 ₩1,849,000~ 3박 5일 ₩1,649,000~

무안 ↔ 방콕 직항

관광

2011. 2.27 ~ 3.27 출발까지

- ★ 방콕, 파타야 3박4일 ₩799,000~ [출발-목요일]
- ★ 방콕, 파타야 3박5일 ₩849,000~ [출발-일요일]
- ★ 방콕, 캄보디아(양코르왓) 3박4일 ₩899,000~ [출발-목요일]
- ★ 방콕, 캄보디아(양코르왓) 3박5일 ₩949,000~ [출발-일요일]

불포함: 유류할증료(₩68,000), 기사&가이드, 캄보디아 비자비용

제주도 오렌지호스탈라크루즈호트 떠나는 제주도 여행!!!!

- ★ 목포-제주도 2박 3일 ₩139,000~
- ★ 장흥-제주도 2박 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 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무안 ↔ 북경 원천 아시아나항공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 북경 만리장성 4일 ₩299,000 (매주 화요일 출발, 출발일: 3/1, 8, 15, 22, 29)
- ★ 북경 만리장성 + 금면왕조소 5일 ₩349,000 (매주 금요일 출발, 3/4, 11, 18, 25)

불포함: 유류할증료, 단체비자, 가이드&기사(4일-\$40/인, 5일-\$50/인) 심할해 인력거 투어-\$20/인(필수옵션) ※8명부터 출발 가능.

무안 ↔ 상해, 싱가포르, Batam

3월달은 매주 목, 토요일 떠나는 상해, 싱가포르, Batam 여행~

중국東方航空 CHINA EASTERN

- ★ 상해, 싱가포르 1박 Batam 2박 5일 ₩948,000
- ★ 상해, 싱가포르 2박 Batam 1박 5일 ₩998,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입국비(\$15), 가이드&기사, ※10명부터 출발 가능.)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 2년임 영업보험가입 / 여행공제 기업업체 * 공동조사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원 기업(해외상품 1인원, 국내상품 5인원), 관광진흥회가입기업, 관광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식재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 상가 요건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약관)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여행